

다산포럼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갖고 싶다



김정남 언론인

이른바 '장미 대선'이라는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라는 전대미문의 격변 속에 치러지는 역사적인 선거로, 1961년 4·19혁명에 따른 7·29총선이나 30년 전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맞이했던 12·16대선에 비견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성에 걸맞은 긴장이나 흥분도 없이, 박근혜 탄핵에 따른 선거라는 의미마저도 퇴색된 채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진영 논리가 또다시 판을 치고 있다.

그나마 이번 선거에서 고무적인 것이 있다면, 26.06%에 달하는 사전투표가 보여 주는 국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12명 바른정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이 맞닿았던 대선 선거판에 신선한 역풍을 몰아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거지와 위선을 질타하는 국민의 성원이 존재 기로에 서 있는 정당과 흔들림을 당하고 있는 후보를 지켜 주고 있는 것이다.

정춘 특·특

우리 스스로 가치를 올리자



조재상 꿈틀 공동대표

얼마 전 연락이 뜸했던 고등학교 시절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게 됐다. 반가운 마음에 “요즘 뭐하니? 어디서 일하고 있지?”라고 물었다. 그 친구는 한 기업의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한다고 답했다. 그리고는 이내 단순노무가 아닌 기계를 조작하는 생산기술원, 라인 설비를 수리하는 설비 보전원이라며 한참을 설명했다. 단순 생산직이라고 하면 마치 큰일이라고 하는 듯이...

왜 우리는 생산직이라는 직업에 대해 떼땀하지 못한 걸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생산직종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 하는 일'이고, 어디에 가서 떼땀하게 말할 수 없는 '단순노무'라는 분위기와 시선이

패배한 것 같다. 매일 밤, 제대로 수면도 취하지 못한 채 2·3교대로 근무하며 누군가가 개발해낸 제품들을 '한 땀 한 땀' 만들어내는, 경제 성장의 주요동력이 되어야 할 그들이 어째서 '공돌이·공순이'라는 조롱까지 듣어가며 저평가되어야 하는 걸까? 취업이 하늘에 별 따기라는 요즘이다. 기업의 생산직 사원으로 들어간 이들 역시 수없이 자기소개서를 쓰고, 낙방의 쓰라림을 겪어가며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을 것이다. 나다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심정으로, 힘겹게 입사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청년 중 한 명일 터인데 말이다.

사실 나도 광주에서 3교대 근무를 하는 생산직 사원이다. 일부 사람들은 '단순한 일을 반복하면 생각과 일상이 단순해진다'며 생산직을 저평가한다. 생산직에 종사하는 나 또한 그 경험을 피해간 것은 아니다.

매주 바뀌는 교대근무 시간과 야간근무 등 점차 피로가 쌓여가고, 반복되는 업무로 일상의 특징이 사라졌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늑했다. 매달 나오는 월급

한국은 과거에 중국의 일부였으며 여전히 고압적인 중국, 알미우리만큼 발 빠르게 우경화로 움직이는 일본, 한 발 떨어져 한반도를 지켜보는 러시아, 110여 년 전 한말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한국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국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뿐만아, 안으로 한국은 헌정과 경제 위기, 교육과 문화,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과 노령화 등 구조적이며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내부적 갈등 국가라는 명예를 지고 있다. 혹자가 말하듯, 지금 한국이 맞이하고 있는 총체적 위기는 한말 이후, 또는 정부 수립 이후 최고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우리는 이 총체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낼 수 있을까.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대학' 장구(章句)의 진의는 그 시간적 순차성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 각각의 상호연관성, 그 전체적 통일성에 깊은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齊家) 바깥의 수신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수신이 아니라 기실 소승(小乘)의 목탁이거나, 아니면 한말 이기(楸己)의 소라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극 앞선 제가란 결국 부옥(富屋)의 맹견과 그 높은 담장을 연상케 합니다. 평천하를 도의시한 차극, 이것은 일본의 침략과 황

포를 그 본보기의 하나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통혁당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신영복(1941~2016)이 감옥에서 그의 부모님께 보냈던 편지의 일부입니다. 나는 이번 대선 기간 중 대선 후보들이 발하는 TV토론과 그들이 쏟아 내는 발언들을 보면서, 저들 중에 과연 수신제가를 나름대로 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차극 평천하의 경륜을 가진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까, 아니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놓고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을 돌아본 사람이 있을까를 생각했다. 솔직히 고백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실망을 넘어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적어도 인격적으로 그가 우리의 대통령인 것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 박근혜로 하여 떨어진 국적, 잃어버린 한국인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지도자, 국가의 안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가는 지도자,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세계 평화와 인류의 진보, 민족의 존엄과 통일, 대한민국의 명예와 권익을 설파해 낼 수 있는 지혜와 경륜을 갖춘 지도자, 가난 자체보다도 고르지 못한 것을 해결해 주고, 가난이 제맛만이 아닌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뿜어 주는 지도자, 최고의 인재와 최선의 정책으로 협치와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지도자.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갖고 싶다.

社說

운명의 19대 대선 투표 빠짐없이 참여하자

전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치러지는 운명의 제19대 대선 선거일이 밝았다. 22일간의 열띤 선거운동을 끝으로 19대 대선은 이제 유권자의 선택만 남게 됐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에 실시되는 이번 대선은 짧은 선거 기간 때문에 후보들의 진면목을 살펴볼 기회가 부족했다. 물론 여섯 차례의 TV토론이 진행됐지만 시간 제약과 인신공격 등으로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해야만 한다.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대통령 선거보다도 매우 중요하다. 쫓ult 민심으로 대변되는 국민의 열망이 이번 선거에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유권자들의 열망을 반영하듯 사전 투표에 1100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26.6%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전체 투

표율이 반드시 높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사전 투표에서 호남과 세종시의 투표율은 평균치를 상회했지만 보수 성향이 짙은 대구·경북의 투표율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보수 후보들의 분열로 상당수의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일각에선 사전투표율이 높은 만큼 굳이 나 하나쯤이야 투표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며 기권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에 하나, 유권자들이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안 될 일이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 이후 갈라진 사회를 통합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비록 후보의 공약과 자질을 검증하는 데 시간이 부족했지만 그럴수록 더 꼼꼼히 따지고 투표하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무능한 대통령으로 인한 국정 혼란의 피해는 한 번 겪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선거일에도 여론조사 공표하는 나라 많은데

깜깜하다. 오늘 19대 대선 투표가 시작됐지만 알 수 없다. 안갯속이다. 어떤 후보가 얼마나 앞서고 있는지, 그리하여 어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을 것인지, 여전히 가늠하기 어렵다.

이렇게 형성된 다자구도는 이번 대선 결과를 읽사리 절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이유가 또 있다. 바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이다.(공직선거법 제 108조)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그렇다면 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을 정해 놓은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권익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선거 사상 유례없이 다자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전라투표에 나왔던 호남의 표심이 갈라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꺾였을 땀셨던 보수층도 선거 막판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다자구도는 이번 대선 결과를 읽사리 절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이유가 또 있다. 바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이다.(공직선거법 제 108조)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이젠 시대가 바뀌었다. 국민의 여론도 성숙됐다. 지금도 그럴 유지하지는 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1990년대 마련된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공표 금지 조항은 시대착오적이며 '국민을 미성숙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無等鼓

70~80년대 청소년기를 보낸 남학생들은 이소룡을 통해 중국 무술에 매료됐다. 이소룡은 중국 전통 무술인 영춘권에 태권도·가라데·유도 등을 더해 '절권도'라는 자신만의 무술 스타일을 개발했다. 뺨을 손가락으로 굵으면서 내는 특유의 소리로 상대방을 현혹한 후 빠른 몸놀림으로 가격하면 거구의 서양 무술인들도 맥없이 나가떨어졌다. 중국 무술은 80~90년대 흥금보와 성룡을 거쳐 홍콩영화 전성기가 지난 2000년대 들어서도 '업문'이란 무술 고수 간 대결에 영화로 많은 팬들을 사로잡았다.

무림 논쟁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세 편이 제작된 영화 업문은 영춘권의 최고수인 실존 인물 업문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업문 역을 맡은 견지단의 현란한 손과 발동작은 감탄을 자아낼 정도다. 영화 속에서 그가 상대한 사람은 가라데의 일본 장교, 복싱 영국 챔피언 등 각 분야의 고수들이었지만 모두 상대가 되지 않았다. '최후의 대결'이란 부제가 붙은 3편에선 암흑 조직의 보스로 나오는 '해주막' 타이스과 결전을 벌여 관심을 끌었는데 결국 무승부로 끝났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중국 무술은 영

무술 고수 간 대결에 1000만 위안(약 17억 원)을 내걸었다.

들끓는 여론과는 달리 중국무술협회는 "두 사람의 대결은 무덕(武德)에 위배되고 위험 요소가 있다"며 사사로이 개인 간 대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태극권 애호가인 알리 바바 마윈 회장이 "태극권은 일종의 운동으로 격투술은 태극권의 일부"라고 승부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마윈의 말처럼 '해탄두 앞에서는 모든 무공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 말이 상처 내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문득 태권도는 어떻게, 궁금해진다. /장필수 정치부 부장 bungy@

5·18 37주년 릴레이 기고

촛불로 잇는 오월



정형택 민주노동광주지역본부장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 제주도대회에 참가했던 이들의 시가행진을 구경하던 군중에 경찰이 총을 발사함으로써 민간인 6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발표사건으로 어지러운 민심은 더욱 악화됩니다. 3월10일에는 제주도 전체 직장의 95%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민·공 총파업이 전개됩니다. 미군정은, 단독정부 수립, 단독선거에 대한 제주도민의 극도의 불만이 경찰 발표로 폭발한 이 항쟁의 흐름을 탄압일본도의 강경정책으로 일관합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군정 수뇌부들을 모두 외지인으로 교체하고 응원경찰과 서북청년회원 등을 대거 제주도

이제는 자주의 길로 나서야

파견해 파업 주도자에 대한 검거작전을 시작합니다. 1948년 그 당시 제주도민 28만중 10%가 넘는 3만 명 이상 학살당한 43 항쟁의 발단이었습니다.

1980년 광주 5·18과 1948년 제주 4·3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쟁과정에서 '수많은 비무장민간인이 군대에 의해 참혹한 죽임을 당했다는 것, 미국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광주에서는 미국이 광주 시민을 상대로 한 신군부의 '무력 진압'을 묵인, 방조, 승인했습니다. 제주에서는 미군정이 직접 진압 작전을 지원하고 통제했습니다. 32년의 간극이 있지만 1948년에도, 1980년에도 한국군 작전통제권은 바로 미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7년인 현재도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중의 요구를 저버리고 그 반대편에서 오직 권력과 부를 차지하기 위해 미국에 기대어 그 힘을 이용한 사대매국 세력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2017년 4월 26일 새벽, 국방부는 군과 경찰을 앞세워 성주 주민들과 국민의 결사

반대의 통곡과 저항에도 그들을 짓밟고 사드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사드의 효용성은 이미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실효성 없는 북한의 핵 미사일 방어가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따라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지공여로 주권을 팔아먹고 주민들에게 고통, 희생을 강요하며,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위기분쟁지역으로 격화시키는 사드배치는 미국의 이익만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역사학자는 우리 역사를 자주파 대 사대파의 대결역사로 구분합니다. 조선 중기 이후로 우리 역사에서는 병자호란, 경술국치, 남북분단의 3가지 큰 실패가 있었다고 진단합니다.

외국 침략군에게 국토가 짓밟히고 외세에 주권을 빼앗기고 강대국들과 사대주의자들이 결탁하여 국토를 분단시켜 70년 넘은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의 최대의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은 민중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대부분 아무 잘못도 없는 민중들이었습니다.

사대주의자들이 집권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4·3항쟁도 5·18만중항쟁도 사대주의자들의 권력전탈 기간 중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민중들의 촛불 혁명으로 무능하고 무지한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국정농단으로 시작하였지만 수십 년간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열망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이 1000만명에 달하는 노동문제, '헬조선'으로 비유되는 청년문제, 사회 곳곳에 쌓인 차별의 문제... 사회 개혁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되고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은 친일 친미 사대주의를 걷어내고 자주의 길로 나서는 것입니다. 무릇 '자주'란 남의 나라 눈치보지 않고,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 민족, 우리 민중을 위하는 것을 그 출발로 하기 때문입니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such as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